



다면 角杯尖部가 集合될 內部는 보이지 않는 實用的 容器이다. 角杯臺는 座底가 圓形이고 上下二段에 是 相互어긋난 方形孔이 七個 뚫여져 있다. 不幸하게 角杯 罅는 上部의 한 곳 이 破損된 것이다.

前者와는 달리 楕圓形으로 座底위에 올라갔고 角杯를 斜線으로 罅게 前後面에 二孔이 있다. 上部의 欠損된 部分의 狀態로 미루어 X字의 손잡이가 있지 않

- 三孔式 角杯臺 現高 五·七寸 底直徑 四·四寸
- 二孔式 角杯臺 六寸 四·五寸

青瓦臺 石造釋迦如來坐像

申 榮 勳

寺內總督에 依하여 慶州에서 倭城臺로 옮겨졌던 이 佛像是 그 後 青瓦

臺로 移置되었던 모양으로 지금은 枕流閣後面 巖터 위에 놓여 있는데 이 미 朝鮮古蹟圖譜卷五에 (圖版一九二〇) 慶州石造釋迦如來像) 報告되어 있다.

이 寫眞은 方形臺座의 上端 一部以上만 보이고 있으나 實相은 臺座竿石을 具備하고 있어 簡略히 現狀을 紹介해두려 한다.

石窟庵本尊像과 南山釋迦坐像과 그 系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이 石佛은 全體로 봐서 胸部가 發達하여 딱벌어진 좋은 體格과 溫厚한 顔面, 굵은 三道, 流麗한 法衣, 자연스럽게 내린 팔과 降魔觸地印 등 곧 統一期新羅像인을 感知케 한다.

肉髻가 높은 螺髮, 白毫에 二條의 眉線과 鳳眼을 하였는데 鼻丘는 높으나 날카롭지는 않다. 지금은 鼻端에 磨損傷을 입고 있으나 모습을 상하게 할 정도는 아니고 대단히 肉感的이다.

右肩偏袒한 左肩法衣上端은 한결 밖으로 접었는데 의문의 흐름은 아주 능숙히 처리되어 있다. 結跏趺坐, 手印은 降魔觸地印이고 右手의 엄지, 중지, 금지의 첫 매니부분의 가벼운 파손을 입은 이외 像은 完全하다.

이 方形臺座上臺石(三·二尺×三·一尺)은 下面에 單瓣의 仰蓮七葉을 갖고 있는데 瓣內에는 蓮房이 있고 瓣端에는 形 突出部가 있으며 上端前面에 衣文이 連結되어 있다. 臺座에는 像을 前部에 安置하여 後面엔 像과 臺邊사이에 〇·九尺의 餘裕를 두고 있어 光背를 安置하도록 意圖되었음을 暗示하여 주고 있다.

別置한 竿石四面엔 石窟庵의 첫과 같은 모양의 上端이 떨어져서 形 眼像이 있어서 흥미롭다. 眼象內에는 四天王像을 浮彫하였는바 그 甲胃 等은 護床石에서 보는바와 같다.

下臺石은 지금 缺하고 있으나 崔南柱氏가 傳하는 바에 依하면 慶州某處에 遺存하고 있고 하니 完備되는 날이면 新羅統一期作品으로는 가장 完全한 것에 속하는 珍重한 것으로 생각된다.

- 全高 四·三三尺 臺座 全高
- 竿石 高一·〇尺
- 竿石 一邊 一·八尺

像高 三・五五尺 竿石까지 포함한 高는 五・四八尺
 肩幅 一・九尺
 膝幅 二・八尺

資 料

梨大博物館 石物 金 和 英

梨大博物館에 石物三片이 所藏되어 있는 바 그中二片은 塔의 基壇部에 쓰여졌던 八部神衆像이고 他一片은 王陵의 護石에 세워졌던 十二支石中の一片인 것 같다. 八部神衆像은 高・八四cm 幅六八cm인 坐像으로 六臂를 들고 있는 것과 劍을 두손으로 비스듬히 잡고 있는 形態로 되어 있다. 十二支神像은 高・九五cm 幅・六五cm의 立像으로 左手는 劍을 잡고 右手는 허리에 얹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런데 傳聞한 바에 의하면 이들 石物은 慶州에서 移置한 것이라 한다.

考古美術 뉴스

◎ 慶州 皇吾里에서 古墳發見

皇吾里 第三十九號 (慶州市廳 南方)附近에서 道路工事 途中 지난 五日 積石式古墳 一基가 發見되어 副葬品이 一時 散逸되었으나 다시 回收中에 있으며 國立博物館에서 整理中에 있다.

◎ 扶餘에서 古墳發見

扶餘郡 窺岩面 午水里에서 整地作業中 지난 二十日 古墳 一基가 發見되었다. 古墳은 自然塊石으로 南北約二・二m 東西約〇・九m 高約〇・五m의 石室

을 만들고 數個의 板石으로 蓋石을 덮었다.

發見遺物은 黑灰色 無紋蓋付 土器(全高 一七cm、腹徑 一六・二cm)一點、鐵製環一點、金銅製 귀거리(徑一・八cm)一雙이라 한다.

◎ 三光里 古墳發見 續報

蔚山郡 溫陽面 三光里에서는 古墳發掘이 繼續되고 있는데 現在까지 一四九基가 發掘되었다 한다. 그중에서 天蓋石이 完存한 것은 單一基뿐이며 다른 것은 거의 盜掘된 痕蹟이 있다고 한다. 石室은 모두 自然塊石으로 築造하였으며 底部는 間 것도 있고 안간 것도 있고 그中에는 外圍列石이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 人骨은 全無하고 出土品에는 金環 勾玉 等 裝身具를 비롯하여 赭色 土器가 黑灰色 土器와 함께 어느墳에서나 出土되며 紡錘車、佩用수를 等도 發見된다고 한다.

◎ 古燈器具 整理

韓國電力株式會社에서 十一月二〇日부터 社內에 保存中이던 古燈器具를 再整理한 다음에 二月末日頃 끝이나면 곧 展示會를 연다고 한다.

石窟庵通信(二)

鄭 明 鎬 發

지난 十一月十六日 부터 自動 溫濕度計를 窟內에 設置하였다. 이 自動 溫濕度計는



扶餘 午水里出土 遺物